

주제 유전자 조작 식품의 비밀

자료 1. 감상문

이 책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부적절한 안정성 심사, 유전자 조작 연구로 탄생한 생물들, 몬산토와 록펠러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하고 우리 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경고한다. 2012년 9월 19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발표된 보고에서는 2년에 걸쳐 실험용 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인 결과 실험용 쥐의 몸 여러 곳에 골프공 크기의 혹이 생겼다. 쥐 실험에서 사용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는 몬산토사가 개발한 킹콘이라는 품종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저자는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미지의 독성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난 이 책을 읽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검사가 충분한건지 먼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정부기관이 검증하는 만큼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은 검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기회로 법안과 부작용 연구를 찾아보게 되었다. ‘최민영, 2021, 유전자 조작 식품(GMO) 과연 안전한가?’에서는 GMO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하면 면역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60% 이상이 GMO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니만큼 GMO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전자단위부터 생태계단위까지 생물학, 의학, 약학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미래에 식품 등 우리와 밀접한 생명과학이 미치는 파급력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료 2. 관련 자료 출처

[뉴스 링크](#)